

스마트폰 시장 '꽃샘추위' 강타

이통3사 13일부터 45일씩 영업정지

오히려 이통사들은 큰타격 없을 전망
스마트폰 제조사는 판매량 타격 예상
판매점 직격탄 "영업정지 반대" 주장



스마트폰 시장이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 때
아닌 혹독한 추위를 맞았다.

정부는 최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고객 접점 판매점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스
마트폰을 구입하려는 고객들도 제품 구입을
위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상 최장 영업정지 명령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
회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
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
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개 사업자가 동
시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는 영업을 하
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이달 13일부터 4월26일까
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된다. LG유플러스
의 경우 13일부터 4월4일까지, 또 4월27일부
터 5월18일까지 사업정지를 받았다.

범위도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
함했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
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다.
이동통신사 3사는 영업정지 명령을 겪어

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단
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도입 등 제도적 장
치의 시행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직접 제재를 받는 주체지
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고
객의 요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당장
수익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오히려 마
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는 분석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보릿고개

반대로 스마트폰 제조사엔 타격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곧 휴
대전화 판매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장 큰 관
심을 모으는 제품은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다. 4월11일로 예정된 출시일과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맞물려 있다.
물론 해외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지만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말 그대로 보릿고개다.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과 대리점
주들은 이번 영업정지 명령을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 피해는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며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운
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
해 "법적 검토를 통해 가져분신칭 및 관련 집
단소송까지 추진할 것이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CJ그룹이 CJ문화재단을 통해 영화, 음악, 공연분야의 신인발굴에 나선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과 아티스트들은 전문가의 멘토링은 물론 정식으로 무대에 올려지거나 시장진출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 | CJ문화재단

CJ, 대중문화예술 신인 발굴 팔 걷는다

영화·음악·공연 분야 선정된 신인에
전문가 멘토링 등 1년간 '인큐베이징'

CJ그룹(회장 이재현)이 대중문화예술인 발굴
과 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CJ그룹의 문
화 부문 사회공헌과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수행
하는 CJ문화재단은 3월부터 대표적인 대중문화
예술 분야인 영화, 음악, 공연 분야의 신인 발굴
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과 아티스트들
은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사를 거쳐 성장 및 시
장진출 가능성을 평가받은 후 선정된다. 이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대중예술 창작센터인 CJ아
트지에서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후원을 받게 된다. 인큐베이징 기간을 거
친 작품과 아티스트들은 올해 말부터 정식으로

무대에 올려지거나 시장 진출을 위해 각 분야 전
문가들에게 소개된다. 이는 신에 발굴부터 대중
문화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문화 기업으로서
CJ그룹이 가진 비즈니스 인프라를 전폭 투입하
는 것이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대중문화 산
업으로의 진출을 도와 문화계 전체를 발전시키
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CSV경영실 민희경 부사장은 "CJ는 대중문
화예술분야 공모전 사업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문화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전 세
계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지속적
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
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공모전과는 달리 최종 작품의 저작권과
판권은 모두 창작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공모는
CJ아트 홈페이지(www.cjart.org)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백수오 알아?" 골드퀸 뷰티식품으로 각광

4050 여성 타겟 식음료 경쟁 치열
백수오, 피로회복·탈모예방 특효
건과류·청포도, 동안유지의 비법



▲올가 '폴비타 백수오 천사' (왼쪽)와 롯데제과 '가나네이처'

"골드퀸을 위한 뷰티 푸드가 뜬다!"

이른바 "골드퀸"으로 지칭되며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4050 여성을 잡기 위한 식품 업
계의 경쟁이 뜨겁다. 화장품·패션업계는 물론
식·음료업계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며 불행히 유통가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과 외모,
삶의 질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골드퀸들을
위한 대표적인 맞춤형 뷰티 식음료 제품들을 살
펴봤다.

●피로회복과 탈모 방지 '백수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조사한 '2014 건강
기능식품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백수오'가 작
년 한 해 가장 주목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으로
뽐냈다. 흰머리를 까마귀 머리처럼 검게 만들어
준다는 뜻의 백수오는 피로회복, 탈모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여성 건강식품
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가에서는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음료 '폴비
타 백수오 천사'를 선보였다. 백수오에 당귀, 어
성초를 혼합한 백수오 복합 농축액과 석류 농축
과즙, 꿀즙을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한방 성분
이 함유돼 있지만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아 거부
감없이 마실 수 있다. 한번에 마시기 적당한 양
(80ml)으로 개별 포장되어 휴대가 간편하다.

한국야쿠르트에서는 '백수오 진'을 출시했다. 백
수오와 석류, 콜라겐, 혼합베리 등 중년여성의
건강을 위한 원료가 담겼다. 인공첨가물은 넣지
않았으며, 달지 않고 은은한 오미자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동안 유지에는 '건과류&청포도'

건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돼 있어 피부
를 윤택하게 하고 원기 증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건
강식품 중 하나다. 최근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배우 김희애가 동안의 비결로 건과류를 지목하
면서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제과는 초콜릿에 과육과 건과류를 넣은
프리미엄 초콜릿 '가나네이처' (70g/2500원) 2종
을 선보였다. '가나네이처'는 초콜릿 속에 블루
베리, 크랜베리, 헤이즐넛을 넣은 '가나네이처
블루베리&헤이즐넛'과 크랜베리, 아몬드를 넣
은 '가나네이처 크랜베리&아몬드' 두 가지다.

컴팩트한 크기로 만들어 휴대성을 높였다.
청포도 역시 피부미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청포도에 함유된 타닌 성분과 폴리페
놀 성분은 운동 활성화, 간 기능 향상, 노폐물 배출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덕분이다.

푸르밀에서는 떠먹는 요구르트 제품 중 국내
최초로 웰빙과일 청포도가 함유된 '떠먹는 비피
더스 청포도' (4개입/2700원)를 출시했다. 이 제
품에 함유된 유산균은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
아가 장 정착률이 높은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을 사용했다. 장 내 균의 안정화를 도와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CJ제일제당은 '쁘띠젤 미초 청포도'를 선보
였다. 뿌띠젤 미초 청포도는 100% 청포도 발효
초로 만든 식초음료다. 청포도를 그대로 발효해
만들었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다
양한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
다.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LF쏘나타 내부 인테리어 렌더링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LF쏘나타, 사전계약 사흘 만에 1만15대 '불티'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사흘 만에 누적 계약대
수 1만대 돌파.

현대자동차는 5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LF쏘나타가 계약 실시
사흘 만에 7일까지 1만15대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9년 9월 출시된 6세대 쏘나타의 사전
계약 사흘간 대수 1만2787대에 이어 현대차 역
대 차종 중 2번째로 많은 대수다. 2009년 당시에
는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정부가 개별소
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신형 쏘나타의 기
록은 의미를 더한다. 또한 국내 시장의 중형차

급 월평균 판매량이 1만6700대 수준(2013년 기
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형 쏘나타의 기록
은 더욱 놀랍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흘간 사전계약대수 1만
대 돌파는 1985년 1세대 쏘나타 출시 이후 30년
가까이 쌓아온 쏘나타의 브랜드 파워와 쏘나타
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25~30일 서
울 삼성동 코엑스 B2홀에서 30년 가까이 7세대
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 쏘나타 브랜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쏘나타 모터쇼'를 열고, 모
터쇼를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T스토어 게임 누적 다운로드 4억건 돌파

SK플래닛은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T스토어
의 게임 누적 다운로드가 4억건을 돌파(사진)했
다고 9일 밝혔다. 또 누적 거래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만4000여개의 게임이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T스토어 전체 거래액 중에서 게임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게임 거
래액은 월평균 5%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경우 올해 1월
거래액이 전체 게임에서 64%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T스토어는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OK캐
쉬백,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
고 있다. 특히 OTP(One Time Password)를 활
용한 휴대전화 결제와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
는 신용카드 결제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드코어 게임에 적합한 결제 수단을 안정적으
로 지원한다.

게임 사전예약제도 오픈했다. 거래액의 10%를
캐쉬로 돌려주는 '보너스클럽' 및 게임 이용 성



향 분석을 통해 쿠폰을 지급하는 '시크릿쿠폰'
등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LGU+, 국민연금공단 통합 통신망 구축

LG유플러스는 전국
약 140여곳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역
콜센터 및 지사·상담
센터를 연결하는 통
합 통신망(사진)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들은 기존 100Mbps보다 10배 빠
른 1Gbps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내부 IP전화기로부터 인터넷전화망까지
의 전 구간을 암호화 해 외부 도청이나 해킹을
방지하도록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PC상에서 전화와 메시지, 그룹웨어 등 모든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통합
커뮤니케이션(UC)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
해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렉서스,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실시

렉서스 브랜드는 10~
31일까지 3주간 렉서
스 전국 서비스 센터
에서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사진)을 실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렉서스
서비스 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
운행 이후 교환 필요성이 높은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와이퍼 러버, 렉서스 고급 엔진오일
(0W-40),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에어컨 필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및 에바 크리닝 서비
스까지 7가지 유상 서비스에 대하여 10%를 할
인해준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